

제 목: [PC-Fi] 반 오디오의 스튜디오 마크 투 뮤직 센터를 구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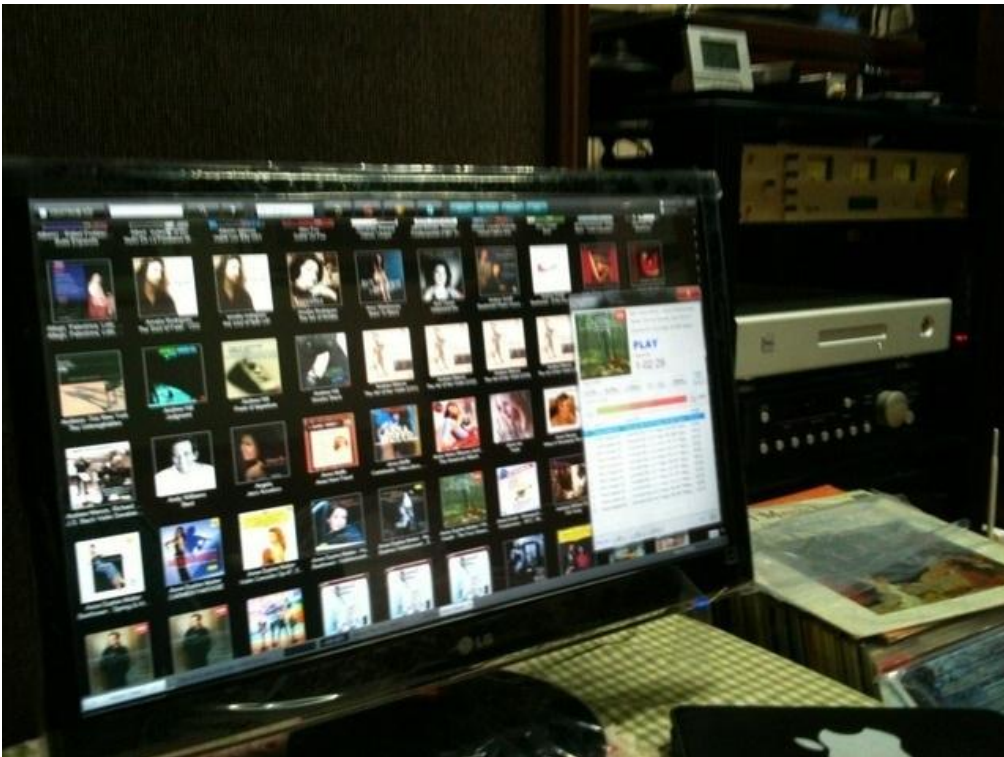
작성자: 박순백(<http://spark.dreamwiz.com>)

작성일: 2012-05-22

아주 긴 낫두리부터 하고, 결론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 피씨파이에 대한 긴 낫두리

어제 반 오디오(Bann Audio)의 스튜디오 제로 마크 투(Studio Zero Mark II) 뮤직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원래 뮤직 센터라고 하면 그건 올인원(all-in-one) 오디오 세트를 말하지요. 분리형이 고급으로 추앙받는 하이파이 오디오계에서는 아주 위험한 이름입니다.^^; 인티 앰프라고만 해도 '고급은 아닌가봐?'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이파이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니깐요. 그런데 인티 앰프의 앞뒤로 모든 소스 기기는 물론 스피커까지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게 기존의 뮤직 센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니...



- 어제 설치한 반 오디오의 스튜디오 제로 마크 투. 왼편은 23인치 LG 터치 패널 모니터. 모니터 오른쪽 중간 옆쪽에 알루미늄 패널로 만든 것이 보이는데, 그게 마크 투입니다.(사진이 아이폰 3GS로 찍은 거라서...^^)

하지만 반 오디오의 뮤직 센터는 기존 개념과는 달리 피씨파이(PC-Fi/피씨를 이용한 하이파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쩐지 통합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피씨파이용 기기이니 이걸 철저히 소스 기기인 것입니다. 소스 기기 중에서도 CD 플레이어와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기인 것이지요. 원래 피씨파이라고 하면 PC를 하이파이 기기로 이용한다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말단에 헤드폰을 사용하는 소위 "헤드파이" 시스템이 대부분이었죠. 즉, 헤드폰 앰프와 통합된 DAC(디지털 투 아날로그 변환기)가 피씨파이의 가장 보편적인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씨파이가 고급화되면 이걸 결국 하이파이의 소스 기기 중 하나로 전략(?)합니다. 그리고 그게 CDP를 대체하게 됩니다. 하이파이가 첨단화된 거라는 말을 듣고 궁금해 하거나 신기해 하던 사람들이 이게 특별한 건 줄 알

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하이파이 사용자들은 피씨파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할 때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PC로 MP3 음원을 듣는 거??? 그거 시끄러워서 어케 들어? PC가 좋은 음향을 낼 수나 있는 기켤가? 그런 싸구려 기계로...' 이렇게 무시하는 것과 '뭘까?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리 가고 싶지 않아도 끌려 갈 것 같은 불안감이...-' 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이지요. 결국 이 둘 다 미신입니다. 잘 알지 못 하고, 무시하거나 침소봉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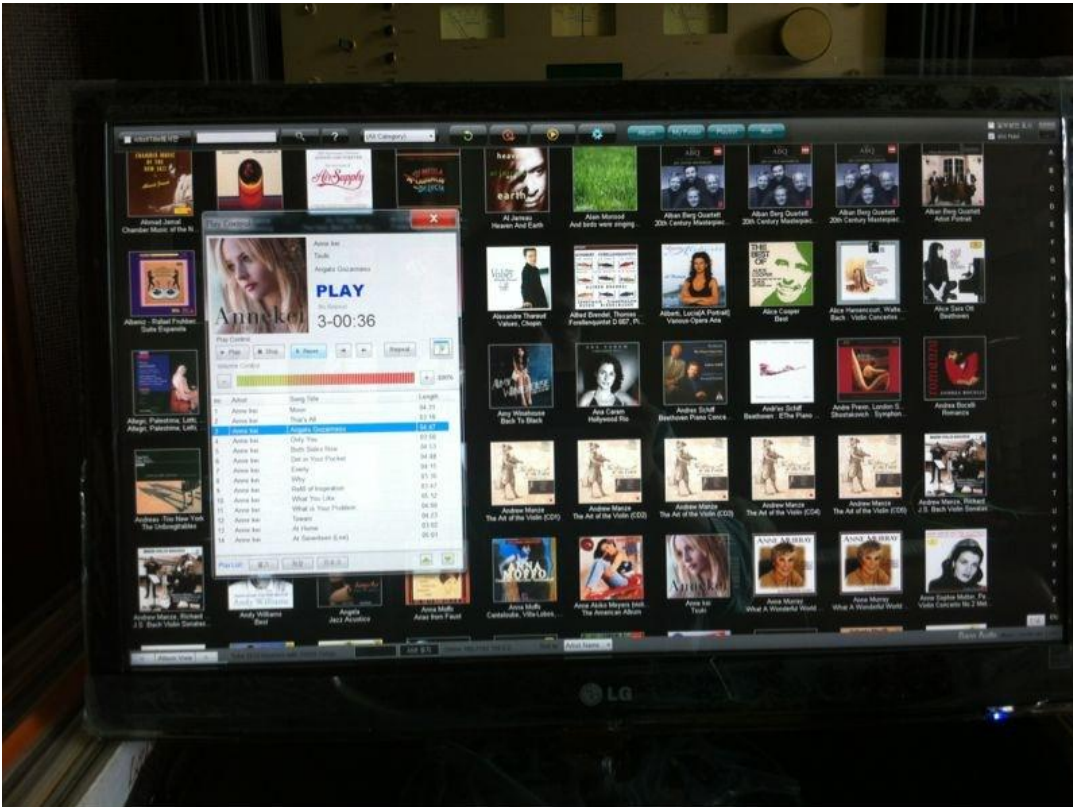


- 모니터의 위치를 오디오 랙 앞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마크 레빈슨 프리 앰프 위로 보이는 것이 마크 투입입니다.(아래의 사진들은 아이폰 4로 찍은 거라서 역시 화질이 안 좋습니다.)

결국 피씨파이 시스템이란 것이 CDP 같은 한 개의 컴포넌트 기기라는 걸 알게 되면 기존 하이파이 사용자들은 다시 안심을 하거나 비웃거나(?)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웃을 건 아니죠. 지금도 진짜 오디오파일들은 LP를 듣고, 아날로그에만 천착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소스 기기의 주류가 CD로 옮겨 온 지 오래고, MP3 기기의 보편화로 CDP가 천대 받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건 대중들의 얘기일 뿐이죠. 오디오파일들에게는 아직도 CDP가 가장 중요한 소스 기기이니깐요.

가장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는 기기로서의 CDP는 이미 30년 전의 낡은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다 나은 음질을 추구하는 오디오파일들에게 44.1kHz로 한정된 음원이 줄 수 있는 만족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LP로 회귀하는 분들이 많았고, 소스가 많지 않고, 값도 비싸며, 새로운 소스 기기를 구입해야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ACD를 사용하게 된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도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SACD 이외에도 HDCD나 블루레이 같은 대안이 있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SACD만도 못 한 대안이었을 뿐이구요. SACD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로 성공이랄 수 있겠으

나, 그게 성공입니까? 아무도 그걸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어설픈(?) 피씨파이는 초기에 오디오파일들의 비웃음을 사기에 적당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피씨파이/헤드파이는 대체로 손실 파일인 MP3를 이용했고, 좋은 음향 재생이라는 면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단지 소리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데만 치우친 윈도우 운영체제 하에서 운용되었으니 말입니다. 처음엔 내장 사운드 카드를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외장 사운드 카드로서의 DAC를 이용하게 되긴 했지만, 디지털 노이즈인 지터가 가득한 가운데 들어야 하는 그런 피씨파이 환경을 보면서 오디오파일들이 피씨파이를 가볍게 생각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라는 게 초기엔 어설프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작을 해도 세련미를 더해 가면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지요. 좋은 음향을 재생하기엔 시원찮은 윈도우 운영체제의 음원 재생 기능을 우회하여 나름의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생겼고, 이를 지원하는 DDC(디지털 투 디지털 변환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지터에 대해 상당히 훌륭한 대안을 가진 제품들도 속속 나타났습니다.

PC의 발전은 속도와 용량의 증가입니다. PC의 처리 속도는 빨라졌고, 저장 매체의 용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계속 극대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CD란 매체가 가진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대용량 음악 소스 파일에 대응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44.1kHz 소스 파일보다 훨씬 큰 88.2kHz, 96kHz, 176.4kHz, 그리고 192kHz 파일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MP3처럼 아래위를 잘라버린 음원이 아니라 녹음 당시의 음원을 손실이 없는 그대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PC와 DDC가 합쳐서 최고급의 CDT(CD Transport)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도 그런 음원을 다루기 위한 기기는 PC였습니다. 용어도 그대로 피씨파이로 남게 되었구요. 이전 기존의 CD가 가진 한계를 훌쩍 뛰어 넘는 소스 기기의 역할을 피씨가 하게 된 것이고, 좋은 DDC와 DA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질에 대해서도 흠을 잡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 때까지는 피씨파이 기기가 컴포넌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데스크톱 PC나 노트북 PC가 있어야 하고, 외장 사운드 카드로서의 DAC가 있어야 하는... 그게 아니면 PC에 USB 2.0/3.0 혹은 eSATA로 외부 연결이 된 HDD에, 분리형 DDC와 헤드폰 앰프가 달린 DAC를 사용하고, 그 출력을 기존 오디오의 프리 앰프 입력단에 물리게 되는... 소스 기기 한 가지에 도대체 몇 개의 전원 코드와 스위치가 달려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피씨파이가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된 걸 인정하게 된 기존의 하이파이 기기 사용자들은 그런 번

거로운 일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오디오 컴포넌트처럼 랙(rack)에 들어가는 형태로 단 한 번의 스위치를 눌러 그 걸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찾은 것이지요. 손재주가 좋은 분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HTPC를 꾸미기도 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오디오파일들과 HTPC를 공동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파일들이 원하는 고급 PC는 케이스도 문제이고, 훌륭한 전원장치를 달고 있어야 하고, SSD도 많이 사용되어야 하며, 케이스 내의 각 부품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차폐될 수 있어야 하며, 소음을 내지 않도록 팬이 없어야 하니 방열 대책도 거의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사용자 개인이 다 맞춰 피씨파이용 시스템을 꾸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반 오디오 등의 오디오 소스 기기 메이커가 스튜디오 제로 마크 투 같은 제품을 발매하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기기는 CD 트레이를 중간에 배치시킨 CDP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패널 오른쪽에 버튼 스위치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치 패널을 가진 모니터와 USB 3.0과 eSATA를 지원하는 대용량의 하드 디스크가 달려 있을 뿐입니다. 기존 오디오 파일들이 원하는 바는 이 기기가 하드 디스크까지 포함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면 하드 디스크의 전원 공급, 진동, 발열, 다른 주변 부품들과의 간섭 등으로 좋은 음질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니 어쩔 수 없이 그건 분리되어야 합니다. 어쨌건 이런 주변기기까지 포함하여 대략 두 덩어리의 컴포넌트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본격적인 피씨파이용 소스 기기가 탄생하여 오디오 랙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반 오디오의 스튜디오 제로 마크 투를 설치해 놓고 보니 이걸 사용하는 것은 노트북과 분리형 DDC, 헤드폰 앰프가 있는 DAC를 사용한 피씨파이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보다는 훨씬 덜 번거롭고, 모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오디오 컴포넌트입니다. 거기다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연주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합니다.

PC를 사용하는 피씨파이에서는 컴포넌트를 켜고, PC에서 음악 플레이어인 후바(Foobar) 등을 켜서 원하는 음악을 하드 디스크에서 골라 그걸 후바로 불러오고 그걸 플레이시켜야 합니다. 아주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제로 마크 투에서는 23인치 터치 패널이 달린 모니터에 나타난 화면을 손으로 아래위로 움직이거나 손가락으

로 검색창을 통해 음악을 찾고, 음반 썸네일을 손으로 터치한 상태에서 팝업된 플레이어를 다시 터치하면 될 뿐입니다.

전 일단 3테라 바이트의 HDD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2,800여 장의 CD에 32,000곡 정도를 담았습니다. 그 음원들은 오류가 있으면 리트라이를 해서 오류를 잡고, 그래도 안 되면 문제의 부분은 conceal(숨김처리)하여 최대한 CD에 기록된 원음과 동일하도록 철저히 관리한 것들입니다.

스튜디오 마크 투는 그 음원들에 담긴 모든 태그(tag) 정보에 대해 풀 텍스트 검색(다중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곡을 찾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정도로 빠릅니다. 원하는 음반을 리핑하는 일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리핑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기기에 연결된 인터넷 무선장치를 통하여 인터넷 상의 Freedb에 접속하여 곡 정보를 찾아서 하드 디스크에 담아 줍니다. 물론 CD 커버의 경우에는 앨범 검색 버튼을 눌러 구글을 통해 찾은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복사해 넣는 정도의 수고는 필요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원래 상대적으로 LP보다 편하자고 쓰는 것이 CD인데, 이걸 곡을 찾고 플레이하는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니 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음원들이 썸네일로 화면에 나타나다 보니 어떤 곡을 찾았을 때 그 옆에 있는 곡을 플레이 시켜 음악의 편식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꿈지락대기 싫어하는 오디오파일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런 편한 일체형의 제품이라는 의미로 반 오디오가 스튜디오 마크 투에 뮤직 센터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일 것입니다. 제게는 딱 알맞은 제품이고, 윤세옥 선생에게는 저와는 달리 "몸쓸 기계의 출현"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 선생이 러다이트 운동을 하고 싶어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흐름에 순응하는 게 편하겠지요.

스튜디오 마크 투 같은 오디오 기기의 형태로서 오디오 랙에 거치될 수 있는 컴포넌트 모양의 기기를 사용하면서 보니 이의 장단점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더군요.

## 장점들

1. 이 제품은 피씨파이 뮤직센터이기에 여러 개의 기기를 가지고 구성하는 말 그대로의 피씨파이에서 경험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2. 스튜디오 제로 마크 투는 음원 소스가 담긴 HDD를 한꺼번에 스캔하여 모든 곡을 띄워놓고, 이를 터치식 모니터를 통해서 원하는 음악을 고르고 플레이 시킬 수 있기에 대단히 편합니다. 윈도우즈의 파일 매니저를 사용하면서 후바 등의 플레이어를 쓰는 분들은 성가신 일을 좀 해야하는데 비해서...
3. 이 항목은 얼치기 오디오파일로서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이 기기를 통해서 재생되는 음악의 품질은 눈외로 하고, 보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심플한 외관에서 기기의 카리스마가 풍기고, 터치식 모니터에 나타나는 수 많은 썸네일과 플레이어의 모습에서 첨단 피씨파이가 부여하는 얼리어답터적인 속성에 예고가 만족됨을 느끼게 됩니다.

## 단점들

1. 이 시스템에 연결된 소스 파일용의 HDD가 USB 3.0을 지원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로서 먼저 HDD를 켜고 조금 기다린 후에 시스템을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스템이 HDD를 인식 못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1에서와 같은 번거로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HDD에 들어있는 모든 곡을 스캔하여 화면에 띄우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몇 십 초 가량의 시간입니다.
3. 스튜디오 마크 투에서는 반 오디오 레거시(legacy)의 파일 포맷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핑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 오디오에 보내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물론 스튜디오 제로 마크 투에서 리핑한 음악은 당연히 반 오디오 레거시의 웨이브(.wav) 파일로 저장됩니다.)

## 장점이자 단점들

스튜디오 제로 마크 투의 뒤쪽 패널에는 여러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거긴 DDC(Bann Audio DDC Mark II)에서 나온 SP/DIF 광단자와 코액시얼 단자가 있고, 내장된 DAC에서 나오는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같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좋은 DAC(보다 정확히 말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음색과 좋은 음질을 가진 DA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DDC에서 출력을 빼서 기존 DAC에 연결할 수 있고, DAC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마크 투의 DAC 출력을 프리 앰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장점이라 하겠지요. 스튜디오 마크 투의 DAC 성능은 레퍼런스급 DAC에 미치지 못 합니다.(아시다시피 레퍼런스급 DAC는 그 가격만으로도 천만 원대이니, 그런 걸 420만 원짜리 기기가 포함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할 겁니다. "스튜디오 마크 투처럼 비싼 걸 왜 써야 돼요? 좋은 HTPC를 꾸미고, 그 안에 반 오디오의 DDC 마크 투를 구해서 집어 넣으면 되겠네요."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나요??? 근데 스튜디오 마크 투가 단순한 하드웨어인가요? 실제로 반 오디오가 자랑하는 건 그 안에 집어넣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존하는 어느 파일 매니저와 플레이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단순무결하고, 뛰어난... 그건 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아니라서 그걸 사제(?)로 꾸민 HTPC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스튜디오 마크 투에 비길 바가 아니죠. 기존에 좀 더 앞서 가던 피씨파이 사용자들이 하던 그대로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그 비싼 걸 써야하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반 오디오가 터치식 모니터나 HDD를 납품받아 거기 반 오디오라고 붙여서 가격을 더 올리는 더 티한 플레이를 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60만 원짜리 모니터를 LG 제품으로 사고, 30만 원짜리 HDD를 시게이트 제품으로 사서 스튜디오 마크 투에 연결하면서 반 오디오 사장님께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물론 그 이전에 음원으로 사용할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CD들을 여러 날에 걸쳐서 리핑하는 개인적인 수고와 그보다 더 많은 음원을 구하기 위한 금전적인 지출은 별도입니다. 지난한 피씨파이로의 길.-\_-)